과부의 잭팟

(눅21:1-4)

1.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2.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3.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4.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과부의 잭팟>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과부의 잭팟'
잭팟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한마디로 거액의 상금을 말합니다.
슬롯머신 아니면 복권, 이런 데서 상금이 누적이 됩니다, 당첨자가 생기지 않아서 상금이 누적이 되면 굉장히 큰 액수로 이게 불어납니다.
거액의 액수로 불어났을 때, 그것을 딱 타게 되는 것 이게 잭팟입니다.
말만 들어도 신나지요, 여러분.
저는 제가 직접 잭팟을 터트리지는 못했지마는, 어떻게 우연히 카지노에 한번 구경, 관광차 갔을 때, 다른 사람이 잭팟이 터지는 것을 봤습니다.
미국에 아틀랜틱 시티에 있는 카지노에 들어가서 구경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뺑뺑뺑 돌아가는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나서 가 봤더니, 땅바닥에 이 카지노 바닥에 주저앉았는데(사람이), 돈이 계~속 산처럼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 같이 온 동료들이 주변에서 막 같이 환호성을 울리며 좋아하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한 움큼씩 돈을 쥐어 가지고선 그냥 막 무슨 통이 있는데, 통에다 동전을 담아 갖고 다니면서, 슬롯머신을 하는데 그걸 막 그냥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 가지고, 빙~ 둘러 서가지고 막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카지노 관리하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딱 테이프를 붙여서, 그 기계를 쓰지 못하게 딱 막아버립니다.
그렇지요, 돈이 다 빠져 나왔으니까 뭐.
아! 신나더라고요.

오늘 과부가 두 렙돈을 내지 않습니까?
두 렙돈은 128분의1 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 봅니다.
하루 품삯을 계산하기 좋게 128,000원이라 그래요. 그게 너무 터무니없는 액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으로 치면.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 128,000원이라고 쳤을 때 128분의 1이면, 두 렙돈이면 2,000원입니다.
이 2,000원을 헌금 하는데, 예수님께서 통찰력을 가지고 과부의 2,000원이 생활비 전부인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헌금하는 걸 보시면서 '그 모든 부자들보다도 이 과부가 더 많이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많이 한 이유는 생활비 전부를 했기 때문이다.
생활비 전부를 그 2,000원 밖에 안 되는데, 뭐 아이들 용돈밖에 안 되는데(요즘으로 쳐도), 2,000원 갖고 하루 생활을 하려면 뭐 생계밖에 더 있겠어요, 옷을 사겠습니까? 무슨 다른 물건을 사겠습니까? 먹는 것이지요, 다.
라면을 사다가 끓여 먹던지 뭐 어떻게 김밥을 천 원짜리 하나를 사먹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루를 꾸려 나가야 되는 그 2,000원을 다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돈이 워낙 없는 사람들이 2,000원 헌금 내는 거, 그게 뭐 그렇게 액수상 대단한 일일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본문의 포인트가 어디 있냐 하면, 생활비 전부를 내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포인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생활비 전부를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헌금을 했다는 게 어떤 뜻이지요?
헌금 하는 순간만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헌금을 했는데, 생활비 전부를 했다, 이것 때문에 과부에게 잭팟이 터졌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헌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헌금에 대한 윤리나 원칙을 찾아내려 그러면, 바늘 끝으로 바늘 끝을 맞추려고 하는 것처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할 수가 없어요.
생활비 전체를 다 바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정성이 가득 담겨야 된다.

그러면 정성의 기준이 어디까지 입니까?
부자들의 경우, 정성스럽게 헌금을 했었어야 된다고 그러면, 과부가 생활비전부를 바치는 것과 같은 그런 정성에 준하는 정성이 되려면, 이 부자들은 갖고 있는 재산 대비 몇 프로를 해야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할 때의 그런 정성스런 마음이 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비율을 어떻게 따져야 정성스런 거예요?
아니면 할머니들처럼, 내일 헌금할 일이 있다 그러면 오늘 토요일 날 지폐를 다리미로 다림질하는, 저희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꼭 그 지폐를 다림질 해가지고 봉투에 넣습니다.
그렇게 해야 정성스런 겁니까?
오늘 본문의 요지는 헌금을 위한 윤리나 원리나 원칙을 찾아낼 그런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씀 하시려고 하는 것은, 헌금을 내라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잭팟을 터트리라는 얘기에 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오히려 받으라는 데에 있는 거예요, 받으라는 데에.
말씀의 요지가 헌금을 내라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려고 하는 것을 받으라는 데에 있는 겁니다.

그럼 뭘 받으라는 얘기냐, 도대체.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다 바쳤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린 지금 주님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헌금 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코앞에 두고 있는 마음이십니다.
자, 십자가가 어떤 사건입니까?

마음을 기준점으로 했을 때, 마음의 바깥세상과 마음의 안쪽세상이 있는데, 모~든 사람의 마음의 관심이 이 바깥세상으로 쏠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요, TV 틀어 보거나 무슨 가정에서 대화를 하거나 교회 가거나 한번 해 보세요. 전~부 사람들의 관심이 다 바깥세상에 다 쏠려 있어요.
뭐 대통령 선거가 있더라, 경제가 어떻다더라, 뭐 아이들 학교가 어떻더라… 맨~ 이 바깥세상에 대한 이야기이고 관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는, 마음이 이 바깥세상에 대해서 죽고 관심을 쏟는 일이 멈춰지고, 마음의 안쪽세상을 향해서 관심을 쏟으라고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시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마음의 관심을 갖고 있을 때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하는 것을 주님이 보시는데 지금 이 여자가 자기 생활비를 다 넣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십자가 사건과 이 과부가 두 렙돈을 다, 생활비 두 렙돈을 다 집어넣는 이 모습이 딱 합치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합치가 되는 겁니까?
생활비를 다 넣었다는 얘기는 자기 생계문제에 대해서 등을 돌렸다는 얘기에요.
내가 무엇을 먹을 것이고 무엇을 마실 것인가, 이 땅에서 내가 이 몸을 이끌고 어떻게 목숨을 부지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완전히 관심을 끊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헌금하는 시간이에요.
헌금하는 시간은 어떤 순간이라고요?
마음으로 적어도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데, 생계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다, 이겁니다.
부자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짜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을 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향할 때라면,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나 그 재산으로 사업하는 일이나 이 세상에서 삶에 대해서 완전히 등을 돌렸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부자들의 마음의 이 자세가 과부와 비교할 때 어떠냐 하면, 과부는 지금 자기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라는 생계문제, 다시 말해서 마음의 바깥쪽에 있는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데, 이 부자들은 잭팟이 터진 사람의 모습, 쏟아지는 돈 무더기를 끌어안고 좋아서 주먹으로 한 움큼씩 쥐어 가지고 같이 온 친구들에게 돈을 주는, 그 자세로 헌금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마음이 등진 채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재산을 끌어안고 있는 채로, 그 돈 무더기를 바라보고 있는 채로, 하나님께는 동료들에게 한 움큼씩 돈을 쥐어주는 그런 마음으로, 뒤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뒤로 헌금을 내고 있었다는 얘기에요, 마음으로는 돈을 끌어안고 있었고.
그 많은 돈이 쏟아지니까 기분이 좋아 가지고, 한 움큼씩 쥐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많은 돈을 주셨으니까, 성전에 들어왔으니까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선민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재산을 주셨으니까, 그 기쁨에 그냥 하나님께 한 움큼 돈 쥐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바라보고 있는 것은 돈 무더기에요.

이 자세가 틀렸다 이겁니다.
재산을 다 팔고 안 팔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을 바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 놓아서 갈 수 있는, 그 천국을 갖는 자세가 이 자세가 갖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면서 그 고난을 받으면서 죽어서 열어놓는 천국을 향한 문으로 들어가라 이겁니다.
근데 그렇게 들어가려면, 생계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등을 돌리고 눈을 감아버리면서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계문제를 돌아보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삶의 문제를 쳐다보질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향하기 위하여.
이 점을 기억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게으른 가장들 전혀~ 가족의 생계문제를 걱정하지 않으면서 이 말씀을 듣다가 '그거 봐~'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분명히 해 두기 위해서 게을러서 생계를 안 돌보거나 딴 짓거리 하느라고 생계를 안 돌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생계문제, 내 인생의 삶의 문제, 내 인생문제 전체를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열어놓으셔서 갈 수 있는 그 천국을 갖게 된다는 얘기에요.

주님께서 오늘 이 과부를 쳐다보시면서 얘기하세요.
'더 많이 헌금을 하였다'
더 많이 헌금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헌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더 많이 기뻐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러면 생활비 전부를 바치는 과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말씀만 하시면 됩니까?
이 과부가 당장 먹고 살길이 없는데, 잘했다고 만 칭찬만 하시면 대수입니까?
오히려 과부를 말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 어떻게 먹고 살려 그러느냐?'
그러나 주님은,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어떤 자신이 있냐?
지금 과부가 잭팟을 터뜨리는 걸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해서 내 생활문제를 완전히 등 돌리고 쳐다보지를 않는다, 마음이 갈리지 않게, 생활문제에 대해서 마음이 흩트려지지 않게, 온통 마음을 다 모아 가지고 하나님께 다 드린다, 잭팟이 터졌다는 것을 보시는 겁니다.

어떤 잭팟이고 액수가 어느 정도냐?
앞으로 과부가 생활하면서 먹고 살, 평생 몇 년을 살든지 간에, 평생을 하나님께서 그 과부가 먹고 사는 것을 책임지신다, 이겁니다.
그 과부가 생활 중에서 필요한 모든 돈을, 평생 필요한 모든 돈을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순간입니다.
'어! 너 생활비 전부를 다 넣었냐? 그래서 네가 생활을 전혀 마음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전적으로 다 쏟아 부었냐? 너의 인생 나머지 전체는 돈 걱정 없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돈 걱정 하나도 안 되게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 액수만큼 잭팟이 터진 겁니다.
과부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면 하실 것이고, 하실 일에 돈이 필요하면 돈을 대실 것입니다.
잭팟이 터지는 거예요.

제가 카지노에서 봤을 때의 그 잭팟이 터진 사람과 이 과부의 잭팟이 다른 것은, 과부는 잭팟

이 등 뒤에서 터집니다.
왜? 하나님을 향하여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카지노에서 잭팟이 터진 사람은, 그 돈 무더기를 가슴으로 끌어안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과부의 잭팟은, 언제나 등 뒤에서 터지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등을 돌릴 때, 완전히 마음이 죽어버릴 때, 그리고 그렇게 죽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다 쏟아지고 살아날 때, 하나님을 향해서만 살아 있을 때, 내 인생의 나머지 전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비용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나를 통해서 하시려는 모~든 일에 대한 모든 비용을 다 충당하시는 잭팟이 터진 겁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잭팟은 언제나 등 뒤에 터집니다.
내가 끌어안을 수 없어요, 나는 언제나 하나님을 끌어안는 겁니다.
하나님을 끌어안고 있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있는 동안에만, 내 생애는 등 뒤에서 잭팟이 터집니다.

우리가 이 몸을 간판이라 그랬어요. 몸 간판.
이 세상이 마음의 형태로 존재하는 나를 모릅니다.
그래서 몸을 하나님께서 간판으로 주셨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이제 비로소 세상이 나를 알아요.
그러면, 이 몸 간판을 누가 내 걸었습니까? 간판을 건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간판을 거둘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그게 몸이 죽는 거예요, 몸이 태어나는 것이고 몸이 죽는 겁니다.
그러면 간판을 건 사람은 왜 간판을 겁니까?
간판을 걸고 있는 동안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 몸이 살아 있으면서, 이 몸이 살아 있기 때문에 해야 될 모든 일들은, 하다못해 먹고 마시는 문제까지, 입는 일 그리고 일을 하건 경영을 하건 무슨 일이든지 간에, 간판을 거신 분의 일이라 이겁니다.
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내 일은 뭡니까?
나는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존재하고 있는 게 바로 그 실제 '나'입니다.
이 몸은 간판일 뿐이에요, 세상에 그런 나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간판일 뿐이니까.
그러면 그 나는 뭘 해야 되느냐?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내 마음이 끼여 있으면서 누구를 사랑하느냐?
마음을 주는 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마음을 보내느냐?
이 몸으로 접하게 되는 이 세상에 마음을 보낼 것이냐? 마음 안쪽에 계시는 하나님께, 천국으로 마음을 보낼 것이냐?
그 양단간에 결단하고 선택해서 실행하는 것, 이게 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개 받은 자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생계문제를 쳐다보지 않고, 지금 빚더미 위에 앉아있습니까? 쳐다보지 마세요!
지금 돈이 많은 부자가 되었습니까? 돈을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재산을 다 팔아서 지금 헌금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의 재산을 팔거나 뭐 어떡하거나 부분을 나누거나 헌금하고 이러지 말고, 우선은 여러분의 재산에 대해서 쳐다보지 말고 등을 돌리세요.
십자가를 붙잡고, 여러분의 재산에 대해 등을 돌리세요!
빚더미 위에 앉아 있는 사람은 빚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생계문제가 걱정인 과부 같은 사람은 생계문제에 등을 돌리고, 돈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 등을 돌려서, 십자가에서 그것들에 대해 죽으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려서 하나님을 끌어안으면, 이 몸, 내 몸이라는 간판을 내 거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해 나가실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왜냐하면, 간판을 거셨을 때는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고, 하시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빚쟁이들이 문제라면 빚쟁이들도 처분하실 것이고, 많~은 돈을 갖고 있는 부자라면, 그 돈에 대한 용도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정해서 지출하실 것이니까, 그것이 교회에 내는 헌금이라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서 내실 것입니다, 액수까지 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붙잡고 죽으면서, 왜 죽어요? 하나님께 향하려고.

이 세상에서 5감관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모든 대상과 모든 사건과 모든 건수에 대해서, 자꾸 애를 쓰면서 죽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도 안 되면 그땐 말씀을 듣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세상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듣다 보면, 들어온 세상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쳐 냅니다.
쳐 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면서, 생활비 전부를 넣은 과부의 마음가짐, 생활에 대해서 생계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고 등을 돌려버리고 죽어버리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길로, 내 마음의 눈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까지 소망하면서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껴안아 주십니다.
그리고 내 등 뒤에서는 잭팟이 터지는 거예요.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게 해 주겠다는 겁니다, 평생에.

다시 말씀드려요?
빚을 졌어요.
그 빚, 빚에 대해서 등 돌리고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만을 향하세요.
막 빚쟁이가 오고 있다, 그냥 등 돌리고 있어요.
제 말대로 해 보세요, 등 돌리고 있어요.
부자는 부자대로 갖고 있는 재산 쳐다보지 말고, 등 돌리면서 하나님만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이 또 돈을 불러올 수도 있고,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을 위해서 적당하게 다~ 쓰여 질 용도가 마련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 이거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이제 부자건 가난하건 뭐 빚을 졌건 뭐 어떤 상태이던 간에, 생활에 대해서 눈 감아버리고 등 돌리고, 하나님을 끼어 안게 되면 내 등 뒤에서, 평~생 돈 걱정, 돈 걱정이라는 건 없어서 걱정이지만 있어도 걱정이에요, 어떻게 쓸 것이고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그런 돈 걱정 전~혀 안 해도 되는 잭팟이 터지니까, 주님 십자가 붙잡고 마음을 천국을 향해서 천국에 계시는 아버지와 승천하신 주님을 향해서 고정시키는 일만 주력하는 겁니다.

이게 때마다 시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잊어버리면 곧바로 우리 마음은 세상으로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오호라 곤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런 거예요.
이 죽을 몸에서 내 마음을 건져 내야 될 텐데, 안 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다른 걱정이 생길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돌아서게 됩니다, 등을 돌리게 됩니다, 이 생활문제에 대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오시고 등 뒤에서는 잭팟이 터져서, 평~생 십자가를 마음에 두고 이 세상에 등 돌리면,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잭팟이 터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그렇지요!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몸 살게 하겠다고 돈 걱정 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하나님, 십자가 우리 주님 돌아가심을 먹고 마시고 호흡하면서, 생활에 대해서, 생계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마음 바깥쪽 세상 전체에 대해서 등을 돌려 죽게 해 주시고, 마음 전부가 하나님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등 뒤에서 잭팟이 터질 때, 결코 다시 돌아서는 일 없도록 저희들을 권고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